

한국인의 자기신세 조망양식으로서 팔자(八字)의 이야기 분석과 통제신념과의 관계 분석

김 지 영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 기 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문화에서 상식적 귀인이자 자기신세조망양식으로서의 팔자에 관한 경험적 연구로, 기존의 탈맥락적이고 탈사회적인 규범적 귀인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팔자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한국문화에서는 기구한 인생이나 삶을 산 사람들, 특히 한(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자신의 신세를 제 3 자적 관점에서 조망해 볼 때 팔자귀인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의 팔자타령 하는 상황, 이유와 심리적 기능, 통제신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1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팔자타령을 언제 하는지, 왜 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을 실시하였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팔자타령을 듣거나 경험하였던 상황과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2에서는 팔자귀인과 통제신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1의 분석결과, 팔자타령은 기구하거나 한 많은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운이 없을 때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외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기구한 운명적 삶이나 사건에 대해 팔자귀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의 팔자타령은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 부정적 사건이나 삶에 대한 신세한탄이라는 정서적 반응과 인과 추론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신세조망양식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 상식적 귀인, 운명, 팔자, 한, 신세조망

[†] 교신저자 :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연구교수,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E-mail : 66purple@paran.com/purple66@skku.edu

한국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팔자’라는 말을 자주 한다. ‘팔자’란 자신이 태어난 해, 달, 날, 시의 사주(四柱)를 간지(干支)로 말할 때 글자가 여덟 개로 나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새로운 우리 말 분류대사전, 1944). 고대로부터 한국인들은 이 여덟 글자에 그 사람의 길(吉), 흉(凶), 화(禍), 복(福)과 평생의 운세가 모두 담겨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아직도 현대인들의 의식에 고스란히 살아,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러 저러한 신세나, 운수에 관해 이야기 할 때 흔히 팔자 운운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아래의 팔자에 대한 속담에서 한국인의 팔자의식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팔자가 사나우니까 의붓아들이 삼년 만이라’¹⁾, ‘팔자가 좋으면 동이장수 만머느리 됐으랴’²⁾, ‘팔자도망은 독안에 들어가서도 못한다’³⁾ (고사성어 속담사전, 1998)⁴⁾. 또한 여자가 재가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신분이 상승한 경우를 두고 ‘팔자를 고친다’⁵⁾는 말을 하기도 하며, 불운을 당한 사람이나, 남편을 잘못 만나 고생하거나, 일찍 혼자된 여자에게 ‘팔자가 사납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팔자라는 말은 긍정적인 맥락보다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많이 사용하는 듯하다.

고대 명리학자 유충화의 ‘제왕 격 사주, 굶어 죽는 팔자’에서는 인간의 숙명을 하늘이 내려준

것(天命)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에 사람의 운명(運命)은 숙명과 달리 그 절대성에 다소 가감이 되는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운(運)은 동적이며 가변적이고 명(命)은 정적이며 고정불변한 것으로, 운명이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 즉 통제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명관은 서구에서도 근대 이전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Berger, 1979, Christopher, in press에서 재인용. 서구에서 전해 내려오는 운명 혹은 팔자(fate)에 관한 격언이나 속담을 보면, 운명은 자신이 개척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통제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말들이 있다. 예를 들면, ‘Fate loves the brave(운명은 용감한 자를 좋아한다)’⁶⁾라는 말은 자신이 운명을 용감하게 개척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반면에 ‘Fate works in a strange way.’라는 말은 자신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동양문화권에서의 운명과 팔자는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공통점과 바꿀 수도 바뀔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심리학적 입장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팔자와 운명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팔자귀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대학생 30명에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언제 팔자 닷을 하는가를 면접하고 질문해 보았는데,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범주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는 급작스러운 사고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치는 경우(예를 들

1) 팔자가 좋지 않으니깐 의붓아들이 더 나이가 많다는 말.
 2)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
 3) 일이 역지로 되지 않음을 뜻하는 말.
 4) <http://hometopia.com/proverb>에서도 자료검색이 가능함.
 5)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팔자는 길들이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모든 일을 팔자 닷으로 돌리지 말고 노력하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숙명과 같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은 바꿀 수도, 바뀔 수도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6) 이와 비슷한 말로 ‘None but the brave deserves the fair.’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는 용사가 아니고는 미녀를 얻을 자격이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면, 임신부가 아이를 유산한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입사시험에 붙었는데 회사가 망한 경우, 시험에 떨어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연적이고, 예측불허의 통제불가능한 일발적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운범주'라고 명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은 '운명'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즉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경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너무 고생스럽게 산다라고 느끼는 경우, 과부나 홀아비로 사는 경우 등 '운명 범주'의 답변 내용은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간에 불운한 인생의 전반적 궤도가 고착되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우 팔자 탓을 한다고 한다. 이 운명 범주는 통제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범주는 상호 작용적인 것으로 운에 의해 자신의 운명 전체가 뒤바뀌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김기범, 김지영, 최광혁, 한준오, 최상진, 2002;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최상진, 김기범, 김지영, 2001; Choi & Kim, 2000; Kim, Choi, Choe, & Kim, 2001; Kim, Kim, & Choi, 2002).

이렇게 팔자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맥락을 보면, 좋은 일이나 긍정적인 결과, 순탄한 상황보다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자신의 노력에 비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계속된 불운으로 불행하게 산 사람들의 인생을 말하는 경우에 흔히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팔자에 관한 진술의 맥락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예기치 못한 불운한 사건의 결과나 그러한 결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일로를 걸었다고 회고되는 경우 '팔자 탓'을 하게 된다. 즉 불행한 사건이나 자신의 불운한 인생에 대해 팔자에 귀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최상

진 등, 2000; Kim et al, 2001).

귀인의 양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귀인 스타일이 인종간, 계층간(Battle & Rotter, 1963), 문화간(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Matsumoto, 1996, pp. 165-169; Kashima & Triandis, 1986; Semin & Zwier, 1997, pp. 55-57)에 명백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귀인이 결혼 생활, 문제 행동의 극복, 문제 해결, 심지어 비만(Bradbury & Fincham, 1992; Furnham & Hayward, 1997; Larson & Sailors, 1997; Crandall & Martinez, 1996)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Heider(1958)나 Kelley(1967)에 의한 초창기 이론과 현재의 귀인이론간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초기의 귀인이론은 특수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하나의 결과에 대해 하나의 원인을 찾는 단순한 설명에서 출발했으며, 지각자를 규범적 모형에 따라 사고하는 과학자로 상정했다.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지각자들이 몇 개의 정보를 토대로 하나의 원인을 추론한다는 귀인이론이, 복잡한 일상의 사건을 추론하는 사람들의 귀인과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며, 일반인들이 과학자와 같이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차로 확인되었다. 즉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보통 사람들의 지식은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연결망(network)을 이루고 있거나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Antaki, 1985). 경제적 빈곤이나 실업 같은 일상적 사건이 가지는 복잡성에 주목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가진 정세(精細)한 인과적 인지구조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것이다(Furnham, 1982a, 1982b). 또한 사람들이 과학자와 같이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수용능력이 제한된 상황이나 동기 등에 의해 귀인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김혜숙, 1999, p. 5)은 귀인 이론에 있어 감

정이나 동기와 결부된 추론의 복합적인 양상과 보다 현상적 기술에 근거한 설명이 요구되는 지점인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통제(소재)에 대한 관심이 있어왔는데 통제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Rotter(1966)가 통제의 개념을 성격 차원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여타의 성격 척도와 마찬가지로 통제 유형을 자신이 개발한 내외 통제 척도를 사용해 통제 유형을 측정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그는 자기 자신과 주변환경과의 관계에서 양자 중 어느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성격유형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특정한 개인이 환경에 압도당하느냐 또는 환경을 지배하느냐의 문제를 통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환경의 힘을 개인의 힘보다 강한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을 외적 통제자로, 반대로 개인의 힘을 환경의 힘보다 큰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나타났고, 이러한 연구들은 내외 통제의 개념을 성격 측정의 중요한 차원으로 부상시켰으며, 이론적 측면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며, 주관하느냐에 따라 행동의 양식 및 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통제라는 개념은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사상을 유발시키는 힘을 뜻하며, 그러한 힘은 성취, 성공, 지배, 안녕 등과 같은 긍정적 결과의 추구뿐만 아니라, 실패, 불행, 고통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의 제거에도 관여될 수 있다. 한편 통제와 관련된 신념 즉, 통제감은 사상의 결과와 과정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정 또는 작위시킬 수 있다는 신념, 인지 또는 생각을 뜻한다.

한 개인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상에 대한 통제감을 갖지 못할 때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는 물론, 무력감을 갖게될 가능성이 높으며(Pittman & Pittman, 1979), 부정적인 자아관, 자존 및 자신감의 상실 자기 효능감의 약화, 사회적 성취의욕의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심리특성을 형성할 가능성은 높아진다(Anderson, 1977). 또한 사회적 영향력 및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소극성을 띠는 가능성이 높으며, 자유, 자율, 민주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시키기 어렵게 된다(Lefcourt, 1976).

이러한 통제양식의 문제는 한 사회 또는 문화권내의 개인간의 차별적 특성을 기술하는 개인차 변인으로서 연구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간 차이를 비교해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회심리적 변인이 될 수 있다.

비교 문화적 연구에서 동양인들은 통제소재에 있어 외적 통제 지향적(Yang & Lin, 2000)이라거나 혹은 당사자에 대한 책임 귀인이 아주 드문 현상으로 나타났는데(Moris & Peng, 1994), 이는 귀인오류에 관한 동서양의 차이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Lee & Herzog, 1996; Markus & Kitayama, 1991). 즉 대체로 집합주의적 동양 문화권에서는 귀인 지각자들이 행위자의 성향보다는 상황에 주로 귀인 한다는 것으로 동양적 문화가 가지는 귀인의 독특성을 짐작케 하는데, 일단 동양인들은 서구인과 비교했을 때 내적 통제의 개념이 약하다는 특징은 여러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귀인이론에서 외적 통제의 개념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한국인의 운명론인 팔자는 자신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초현실적 힘이나 존재에 귀인한다는 점에서 서구인의 fatal attribution과 비교될 수 있겠지만, 귀인의 대상과 귀인이 촉발되는 심리적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인의 팔자귀인은 하나의 단발적인 사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는 그 사건의 원인을 전적으로 남의 가해 혹은 나의 실책으로 귀인하려는 시도와 달리 사건이 지난 후에 비로소 형성되는 귀인이자 회고적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한 사람의 일생에서 일어난 역사를 대상으로 한 귀인 양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본 연구자들이 사용한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위안부 할머니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할머니의 기구한 운명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이지만, 자신의 일생에 대한 총체적 귀인에 이르러서 행해지는 자기 팔자로의 귀인은 공평하지 못한 세사(世事)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다.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나인가?’, ‘하필이면 왜 그때 그 장소에 갔다가 일본군사에게 붙들렸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물음에 이르러서는 자기 팔자의 기구함에 대한 ‘탓’이 촉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구인의 운명은 자신의 ‘탓’이 아니지만, 한국인의 팔자는 자기 탓이 아닌 동시에 자신의 팔자 즉 자기 탓이라는 복합적 귀인양식 구조를 지닌다.

두 번째로, 서구에서 자신의 운명에의 귀인은 문제 행동의 극복에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Furnham & Hayward, 1997), 자신의 문제가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보다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다. 때문에 애정관계에서도, 서구의 운명론자들은 파트너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며 파트너가 자신의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노력하지 않고 쉽게 관계를 끝내려 한다(Hohn, 1998). 그러나 한국의 팔자는 자기의 불행을 위무(慰撫)하는 심리적 기능을 가지며, 개척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뒤에 자신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극단

적 상황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것이다.

한국인이 순응적 운명론자라는 것은 한국인의 의식이나 한국사회를 다룬 여러 문헌에서도 고찰되는데(김열규, 1984; 이규태, 1977 등), 이것은 한국에 뿌리내린 모든 외래 종교가 공유하는 큰 특징-기복신앙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인이 가지는 종교 심리적 특징으로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현세적 공리주의이다. 본래 종교가 가지는 의미는 현실을 초월한 내세, 혹은 초월자에 대한 믿음인데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무속적 믿음과 융합하여 기복신앙화 된다. 이는 한번이라도 점을 본적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계에서 각각 35%, 22%, 66%라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일상문화연구회, 1996).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재화(災禍), 그에 대해 자신과 가족을 지켜달라고 열성으로 기구(祈求)하는 심리의 기저에는 사람의 운명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개척할 수 없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Yang과 Lin(2000)은 Weiner(1983)의 주장에 근거해, 귀인 차원의 근거가 되는 귀인 범주를 찾는 일은 사회 문화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문화가 다르면 귀인의 범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Levenson(1974)은 Rotter(1966)의 모델이 부적합을 지적하며 외적 차원인 운(luck) 혹은 우연(chance) 차원 외에 자신의 내적 통제 밖에 있는 ‘힘있고 권위있는 타인들(powerful others)’에 의한 또하나의 차원을 주장하였고, Bjorck, Lee와 Cohen(1997)은 여기에 ‘God control’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제기하였다.

최상진과 최순영(1989)은 일찍이 규범적 귀인에서 상식적 귀인에 이르는 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 시도를 통해, 사회적 귀인 이론자들이 귀인의 사회적 기능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일

상생활에서 귀인적 설명이 갖는 사회적 심리적 기능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측면이 귀인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저장목록이라는 것이다. 귀인자의 인지적 저장목록은 귀인 내용의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다른 문화권의 두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른 귀인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귀인의 성격은 귀인 구성원의 표상 내지는 인지적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팔자귀인은 서구인의 인지적 저장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귀인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탈맥락화된 사건에 대한 귀인이 아니라 역동성과 장기적 맥락이 존재하고 자신의 전반적 생, 신세에 대한 제 3 자적 조망이 공존하며 자신의 그러한 신세에 대한 체념이나 한(恨)의 감정이 같이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자들은 한국인의 팔자귀인이 사회 문화적 귀인 양식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개인의 통제신념과의 관련성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생활사건(특히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 추정과 결과에 대한 수용이 자기신세와 결부되어 귀결되는 귀인 양식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팔자귀인을 하게 되는 맥락과 그 심리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고 개인의 통제신념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 연구이므로, 먼저 팔자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인의 독특한 한(恨) 경험에 따른 자기 신세 조망 양식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팔자귀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신세 조망양식으로서의 팔자와 한(恨) 경험

한(恨)은 원(怨)의 감정에서 출발하여 심리 내

적 과정을 통해 한으로 전환된다. 원은 타인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받거나 응당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자의식에서 출발한다(최상진 1991). 그러나 점차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억울함이나 분함을 그 원인 제공의 당사자인 외부의 사람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전환과 더불어 분노 감정의 약화와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심리 내적 적응 과정이 일어난다. 즉, 인지적, 감정적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 인지적 재구성의 경우 자기 팔자나 운명 또는 자기 탓으로 돌리는 등의 자기 책임적 귀인 재조정을 하거나,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것이거나, 다 그런거지 뭐 등과 같은 제 3 자적 관조 인생관 등을 수용하여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가라앉힌 분노의 감정과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대해 재정리하는 심리적 반성의 단계가 일어나는데(최상진, 1991; Choi & Kim 1993), 한의 형성과 고착에는 팔자 귀인이 궤를 같이하고 이 둘은 서로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당사자는 자신의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불행을 당한다고 일단 생각하지만 또한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팔자 때문 만이라고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심을 동시에 느낀다. 왜 내 팔자만 이런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회의, 분노, 슬픔, 체념, 억울 등의 강력한 감정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기복이 반복되면서 한의 발생 1단계에 놓이게 되고, 2, 3단계에서는 1단계 감정의 약화와 더불어 자신의 신세를 조망하면서 '서럽다'거나 '비참하다' 등의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보니 그렇다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끝내는 이를 수용하고 한의 감정 상태로 침전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즉 한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 신세를 완전히 팔자에 귀인하는 것으로 고착된다(최상진, 1991, 2000, pp. 86-92; 최상진, 유승엽, 1993; 최상진, 이요행,

그림 1. 한(恨) 경험과 신세조망 양식의 심리적 과정

1995; Choi & Kim, 1993).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최상진 등은 한에 대한 심리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한의 심리 상태와 한이 맺히는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피험자들이 응답한 한이 맺히는 상황은 자기 통제밖에 있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경우와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의 두 가지로 크게 구별될 수 있는데, 자기 통제밖에 원하지 않는 상황에는 가족의 유고, 어려운 외적 상황, 운명적인 상황 등이 있었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는 부당하게 억압받은 경우, 권력이나 권세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팔자귀인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팔자귀인은 소소한 사건이나 단시간의 상황 변화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귀인양식이 아니다. 한국인이 자신의 팔자에 대해 회고하는 시점은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을 대하고 그 사건에 대한 분노나 화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혹은 기구한 일생에 대한 정리적 단계에 이르렀을 때나 가능하다(최상진 등, 2000).

고착된 한의 감정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나 분노는 사라지고 자신에 대한 제 3자적 시각이 형성된다. 즉 나의 불행은 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도 한, 자신의 신세를 남의 것이나 마치 하나의 물적 대상으로 놓고 관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원인 제공자의 구체적 행위나 자신의 실책은 단순한 최초의 시발점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만들게 한 것은 나의 팔자인 것이다. 이규태(1977)는 이를 한국인의 숙명의식이라 명명했는데, 아무리

비참하고 서구인이 보기에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숙명으로 치부하는 가운데 일말의 회생을 자신에게 허락하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이 일차적 방어기제보다 현실초월적, 심리 방어적, 타인지지 의존적 통제인 이차적 통제유형을 주로 사용한다는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최상진, 1992), 팔자를 통한 신세조망은 기대나 희망을 현실을 따라 조정하고 현실사태를 자기 중심으로 재해석하게 하는데 이는 자신의 불행을 자신에 대해 원망으로 돌렸을 때 닥쳐올 자기 모멸감이나 후회, 반대로 남에게 귀인했을 때 느끼게 될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원한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존재하는 것이다.

지난 6월 5일에 방영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점집이 호황을 누리는 한국의 현 실태를 취재했는데 주역에 근거해 사주팔자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일생의 운세를 알거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배우는 한 젊은이는 역술이 주는 장점으로 심리적 안정을 꼽았다. 즉 인간의 실패를 본인의 무능으로 매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주팔자로 풀어서 희망을 주고 위안을 주므로 첨단 현대한국사회에서도 점쟁이나 역술인의 역할은 일반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역술인들조차도 자신의 역할을 인생 상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결국 한국인이 감당할 수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팔자·숙명에 기대어 처리하는 의식적 과정이 얼마나 큰 심리적 위안을 주고 있으며, 때문에 오늘날까지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동된다는 기능적 측면을 짐작케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기 신세 조망양식으로서의 팔자(귀인)를 삶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에 대한 원인 추정 형태로 보고,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의 원인을 팔자에 귀인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접 등을 통한 팔자이야기 분석을 연구 1에서 실시하였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팔자가 외적 통제 소재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의 통제신념에 따른 팔자 귀인의 차이를 검증해보고자 했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팔자 귀인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 2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언제, 왜 팔자라는 말을 하거나 타령을 하는지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대학생 98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자

면접은 주로 50대 후반과 60대의 성인 남, 녀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61세였고, 남성 피면접자는 9명(평균연령 61세)이었으며, 여성 피면접자는 11명(평균연령 61세)이었다 또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대학생들 98명(남자 40명, 여자 58명)을 대상으로 팔자타령 상황과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도구 및 절차

면접에 사용한 질문 내용은 1) 팔자 때문이라

는 말을 사용한 상황, 2) 팔자 때문이라는 말을 하게 이유, 3) 팔자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난 후의 기분에 대해 물어보았다. 면접은 면접자의 질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명의 대학원생이 녹음기를 사용하여 면접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한 조사에서는 1) 팔자 때문이라는 말을 사용한 상황, 2) 팔자 때문이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 3) 팔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드는 생각 및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면접자료 분석은 녹음된 내용을 녹취한 후, 세 명의 대학원생들이 각 면접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에 따라서 범주별로 분류하여 주제를 추출한 후, 이를 서로 비교하여 신뢰성과 타당성⁷⁾을 높였다. 1차 시기의 신뢰성은 60%였으나, 2차 분석시에는 거의 90%에 이르렀고 최종단계에서는 94%였다.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대학원생 3인이 1차적으로 유사한 의미의 상황진술들을 범주화(manifest content)하고, 이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인 후, 2차적으로 상위 범주화(latent pattern)를 통해 내용범주를 분석하였다(Potter & Levine-Donnerstein, 1999). 1차

7) 면접 및 개방형 자료의 내용분석 타당도는 코더(coder)들이 분석에 참조할 수 있는 coding scheme 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코더들이 분류한 내용을 짜간에 서로비교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신뢰도는 분석과정에 따른 안정성과 정확성을 검사-재검사 과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즉, 신뢰도는 3명의 코더들이 3회 이상의 비교과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분석에서 세 명의 분석자 간의 신뢰도는 .55였으나, 2차 분석에서는 .80으로 높아졌고 마지막 최종 분석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결과 및 논의

면접 결과

남, 너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한 팔자(언제, 왜, 기분에) 대한 면접 결과(부록 표 1 참조)를 보면, 주로 힘든 상황에서 팔자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든 상황들은 살기가 힘들거나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일이 잘 안될 때이다. 몇몇 응답자들은 그러한 힘든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 팔자타령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55세의 한 여성의 응답은 20명의 응답을 반영하고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있잖아, 노력으로서도 잘 안되는 것 운명적이라는 거랄까...하늘이 내릴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갈등이 많은 일들이 얹혀 있을 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지어질 때, 못 배웠거나 안 배웠다는 것을 떠나서 모든 귀착점이 나로 인해서 일이 마무리 되어 될 때, 약간 운명론적일 때...” 이와 같은 상황과 이유를 분석해 보았을 때 팔자귀인의 심리적 과정은 개인의 통제밖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의 결과가 닦혔을 때, 그러한 일의 결과를 타인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느껴 자신의 신세를 조망하게 되고, 자신의 한탄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지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팔자 때문이라는 말을 하거나 팔

자타평을 하고 난 후의 기분을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마음에 위안을 삼고 기분이 풀어진다는 식의 답변이었

다. 또한 그러한 팔자타평은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습관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많았다.

팔자 귀인 상황 내용분석 결과

표 1. 팔자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대학생 집단)

범주 빈도 빈도합계(%)	응답내용 (범주)	빈도	%
어쩔 수 없다고 느낄 때 176(51.61)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날 때	31	9.09
	운명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24	7.04
	하는 일이 안될 때	23	6.74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18	5.28
	갑자기 나쁜 일이 닥쳤을 때(병이나 사고)	18	5.28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나 좌절을 겪을 때	17	4.95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할 때	15	4.40
	시험(에) 낙방했을 때	11	3.23
	나만 안될 때(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7	2.05
	주위사람이 요절했을 때	7	2.05
대인관계에서 64(18.76)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5	1.47
	연애, 결혼 등의 이성관계 만남 이별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이) 속씨일 때	29	8.50
	배아플 정도로 타인의 일이 잘 풀렸을 때	19	5.57
뜻밖의 일이 벌어짐 43(14.66)	배아플 정도로 타인의 일이 잘 풀렸을 때	16	4.69
	갑자기 운이 따라줄 때	23	6.74
	운이 없을 때	15	4.39
불우한 환경 및 장애 34(9.97)	의도하지 않았던 행운이 자주 생기는 경우	5	1.46
	불우한 환경(장애, 귀속지위, 과부/홀아비 등) 삶이 고단할 때	15	4.40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10	2.93
지칠 때 20(5.87)	속편하게 생각하고 싶을 때(평계거리가 없을 때)	9	2.64
	귀찮을 때, 무기력할 때	12	3.52
기타 4(1.17)	귀찮을 때, 무기력할 때	8	2.35
	“팔자를 타고난 쌍둥이도 부귀빈천은 다르다”	4	1.17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친구에게 역마살 낀 팔자라고 구박할 때 어떤 일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시험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총 계		341	10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분석한 결과, 먼저 팔자라는 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내용분석결과(표 1 참조)를 보면, '어쩔 수 없다고 느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질 때', '불우한 환경 및 장애' 등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불가항력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팔자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거나 뜻밖의 일은 내적 통제보다는 외적 통제 소재의 일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때 등의 경우가 많았다. 불우한 환경 및 장애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뜻밖의 일은 행(불)운이 있을 때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결과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일상의 삶보다는 지난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기구함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팔자타령을 하게 되는 이유(표 2 참

표 2. 왜 팔자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대학생 집단)

범주 빈도합계(%)	응답내용 (범주)	빈도	%
심리적 안정 73(31.33)	자기위안	33	14.16
	합리화의 과정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18	7.72
	쉽게 생각하려고	14	6.00
	답답함을 달래려고	8	3.43
책임전가 44(18.88)	책임전가	24	10.30
	도피행각의 한 부분	11	4.72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9	3.86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27(11.58)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따른다	21	9.01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6	2.57
사건의 원인으로 생각해서 23(9.87)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23	9.87
습관적으로 17(7.29)	습관적으로(한국인의 습성, 한국 문화, 남들이 다 그러니까)	17	7.29
부러워서 5(2.14)	남의 생활이 부러워 보일 때	5	2.14
기타 3(1.28)	어려운 자신의 환경과 풍요로운 환경을 비교하며 상대적인 불만을 나타내는 수단	3	1.28
	재미 삼아		
	팔자타령으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고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총 계		233	100

조)로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팔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정했는데, 다른 한편 ‘한심하다’, ‘진부하다’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자타령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으로는 심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일이 잘 안풀리는 사람들과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팔자는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기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안을 삼기 위해 하는 귀인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의 면접 결과와 비교를 해 보면, 성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모두 팔자타령의 주요 심리적 기능은 자기위안 등의 심리적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 집단의 경우 팔자타령이 책임전가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운명이나 주어진 삶을 개척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개인의 통제신념과 팔자 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의 결과에서 나타난 팔자 상황을 근거로 신문 기사 검색을 통해 실제 생활 사건 및 상황 26가지를 선별하였고 개인의 통제신념을 측정하여 내적, 외적 통제 신념에 따른 팔자 귀인의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했다.

방 법

조사대상자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 148명(남학생 70명, 여학생 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구 및 절차

개인의 통제신념과 팔자귀인간의 관계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Rotter(1966)의 내외통제성 척도를 차재호 등(1973)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다.

생활사건 사례로는 주요 종합일간지에서 수집(검색어 기구한 운명)한 사례 중에서 26가지를 선택하여 팔자 귀인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표적 사건 및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서씨는 어촌 출생으로 가난한 옛장수의 딸로 자라, 가발공장 여공, 골프장 식당 종업원 등을 거쳐 단돈 100달러를 들고 단신 미국행, 식모살이를 하다가 결혼한 이듬해인 76년 미 육군에 입대했고, 90년 하버드대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군인과 학생의 길을 함께 걷다가 96년 소령으로 예편했다. 요즘은 일본이 한국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서씨는 모녀가 하버드대 동문. 딸 조성아씨는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다. 고등학교 졸업 때 미국 대통령상을 수상한 재원이다.

2) 김 씨는 10년 전 남편이 중풍(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1년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 남편이 죽은 지 5년째 되던 해 이번에는 아들마저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게 되었다. 중풍이었다. 이제 아들마저 살기 힘든 상

황이 되었다.

3) 경기도 제2청이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줄지에 돈방석에 앉게 되는 등 잇따라 벼락부자가 탄생, 화제가 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신천동에 사는 김모씨(45·여)는 지난 2월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입야 8만여평 등 사망한 남편 소유의 땅 8만4천여 평을 되찾아 수십억원 대의 갑부가 됐다.

4) 비 오는 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자가용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웅덩이에 고여 있던 물을 내게 끼얹고 그냥 모른체 지나가 버렸다.

응답자들은 먼저 인구학적 특성 등의 배경정보를 기술한 후, 내외통제성 척도에 반응한 후, 26가지의 스크립트를 읽고 얼마나 팔자스러운지에 대해 7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과 및 논의

팔자는 외적 통제 소재인가 혹은 통제자의 권한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은 내외 통제 신념에 따른 26가지 사건에 대한 팔자귀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팔자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26가지의 사례를 요인분석하여, 사건이나 상황의 잠재적 차원을 알아보려고 했다. 분석 결과 모두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다섯 번째 요인부터는 요인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아이젠 값도 낮아 연구자들은 scree 검정 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의 차원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여 요인의 수를 4개로 고정시켜 탐색적인 요인분석(PC, 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제 1 요인은 모두 10개의 문항들이 적재되었는데, 아들은 재생불량성 빈혈 아버지는 암진단을 받은 한 가정의 이야기, 중군 위안부 할머니 인생이야기, 남편도 중풍, 아들도 중풍이 걸린 어느 여인의 이야기, 복으로 피납된 어느 여승무원의 이야기, 시어머니와 살며 폐암 선고 받은 과부 이야기, 평생 고생만 할머니 이야기, 억울하게 옥살이 한 어느 군인 이야기, 한국 여성의 모진 인생 이야기 등 모두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설명변량 23.54%, $\alpha = .84$). 두 번째 요인은 모진 고생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국 한풀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다(설명변량 11.05%, $\alpha = .75$), 세 번째 요인은 행운 혹은 불운에 관한 것으로 운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설명변량 7.41%, $\alpha = .62$), 네 번째 요인은 황혼이혼 등 부부싸움 이야기에 관한 항목들이 적재되었다(설명변량 5.72%, $\alpha = .51$).

내외통제신념의 평균은 10.92(*Median* = 11)이어서, 중앙치를 전후로 내적 통제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내적통제성향집단 $M > 11$, $N = 51$, 외적통제성향집단 $M < 11$, $N = 60$). 통제신념에 따른 상황에 대한 팔자귀인에

표 3. 내외통제신념에 따른 팔자귀인 평균과 표준편차

사례 통제신념	내외통제신념	
	내적 통제 $N = 51$	외적 통제 $N = 60$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기구한 운명	6.13(1.06)	6.72(1.07)*
한풀이	3.55(1.05)	3.91(1.27)
운	4.46(1.06)	5.12(1.36)*
부부싸움	3.53(1.09)	4.05(1.41)*

주. * 표시는 집단간 차이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우임

있어서 기구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내적 통제 신념자와 외적 통제 신념자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10) = 8.54, p < .01$). 한을 푸는 사례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고, 운($F(1, 110) = 7.89, p < .01$)과 부부싸움($F(1, 110) = 4.61, p < .05$)에 관한 사례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따라서, 외적 통제 성향자일수록 기구한 운명의 삶, 운이 있는 삶과 부부싸움 등의 삶에 대해 팔자에 귀인하는데, 귀인의 정도는 기구한 인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귀인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귀인 양식에 대한 현상적, 복합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한국인의 신세조망과 관련된 팔자귀인의 특징을 밝히고자 시도되었다. 한국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팔자탓’은 예측할 수 없는 불운한 사건과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사용되는 한국인의 사회 구성적 설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이러한 ‘팔자탓’을 두고 한국인의 의식구조나 한국인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서구인과 비교할 때 수동적, 체념적 운명관으로 평가절하 하지만, 하나의 심리의식이 그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일정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Vygotsky, 1978).

한국인의 팔자는 한국인의 길, 흥, 화, 복을 주관하는 주재자이지만, 한국인은 ‘팔자를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절대자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점쟁이를 통해 불운을 피해보려고 노력하는 ‘개척적 운명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팔자탓’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

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과 자기위안을 가져다주는 심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연구 1의 결과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의 팔자는 한(恨)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팔자귀인의 형성에는 한의 정서가 자리잡고 있다. 한은 타인의 가해나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운명적 상황 등에서 발생해서 화, 분노, 슬픔, 억울함, 답답함 등의 즉각적이고 일차적인 정서로 발생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신세에 대한 조망으로 변화한다. 이때에도 분노나 억울 등의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이나 자신에 대한 적극적 화의 감정은 줄어들고 자신의 신세가 ‘불쌍하고’, ‘비참하고’, ‘서럽다’는 자기 연민의 감정이 생긴다(최상진, 2000). 이러한 한의 형성 단계를 통해 인생 전체, 삶 전반에 대한 팔자귀인이 이루어진다(Kim et. al., 2002).

본 연구는 ‘내가 팔자를 이렇게 타고났구나’, ‘내 복이 이것밖에 안되는구나’, ‘운명은 어쩔 수 없구나’ 등 한국인에게 있어 운이나 운명, 팔자는 하나의 통제 불가능한 힘이라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는 일련의 경험적 연구 결과(최상진 등, 200, 2001; 김기범 등, 2002; Kim et. al, 2002)를 토대로 일반인들과 대학생들 대상으로 팔자타령을 하는 상황, 이유와 기능을 면접과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질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팔자타령을 하는 상황이 부정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건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팔자 탓의 정도와 통제신념에 따른 차이를 양적으로 접근하였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결과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 추정으로 팔자 탓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성인들의 삶의 경험을 토로하는 이야기(narrative) 속에는 대학생들에 비해 구체적이고 자기가 관여된 자의식적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삶 속에서 부정적 사건의 원인을 타인과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평가하여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신세한탄으로서 팔자 탓을 하고 있다. 성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의 팔자 탓의 공통점은 운이나 운명을 팔자와 유사한 범주로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범주는 탓하는 사람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팔자 탓의 심리적 기능은 심리적인 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인들의 팔자 탓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어 습관화되어 있어 있었다. 반면에 대학생들은 팔자타령을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시키기 위한 합리화 내지 변명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측면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2에서는 개인차 변인으로 통제신념을 사용하여 통제신념이 높고 낮은 차이에 따른, 다시 말해 외적 통제 신념 집단과 내적 통제 신념 집단의 팔자귀인의 차이를 분석해 보았는데, 기구한 사건이나 삶을 지각하고 평가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 통제신념이 높은 사람들이 기구한 삶을 더욱 팔자스러운 것으로 평가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인 실제 사례는 연구 1의 결과를 토대로 26가지가 선별되었고, 요인분석결과 네 개의 차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차원은 기구한 인생으로 전형적인 팔자 상황이었고, 두 번째 차원은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행복한 결말을 지은 상황이었으며, 세 번째

차원은 행운과 불운이 각각 내재된 차원으로 운과 관련된 차원이었다. 네 번째 차원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다. 각각의 차원 중 기구한 인생과 일상의 사건은 부정적 사건들로 구성되었고, 한풀이는 부정적 사건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말을 보는 것이며, 운 차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에 대한 팔자 탓은 부정적 사건이 주인공 기구한 운명과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운 범주가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사건이 발생 후 긍정적인 결말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팔자는 기구함이나 운과 관련이 있고 긍정적 사건보다는 부정적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그러한 삶이나 운은 통제 범위내에서 지각되거나 평가되기 보다는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지각되고 있어 팔자는 기구함, 부정적 사건과 통제 불가능의 외적 소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제신념에 따른 사건이나 상황의 원인 추론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이 내적 혹은 외적 귀인 소재인지, 그리고 관찰자 관점에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보았는데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귀인하는 지에 대한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단지 개인의 내적 혹은 외적 통제신념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통해 내적인 통제 소재보다는 외적인 통제 소재일 가능성이 있고, 긍정적 사건보다는 부정적 사건에 팔자 귀인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한국 문화에서 팔자 타령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조망할 때 남들과 다른 기구함을 느끼고 그것이 한스러울 때 나타나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운명이나 운

범주의 귀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마음속에는 운도 '팔자'에 속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운은 팔자에 있는 운이라야 있는 것이고, 과분한 운은 '팔자에 없는 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운명과 팔자는 다 같이 '정해진 어떤 것'이고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기구하고 한 많은 인생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기신세조망 양식을 팔자라고 하는 일상의 언어 속에서 찾아보았고 경험적으로 이를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팔자 귀인을 어쩔 수 없는 상황, 운과 운명 등의 차원과 동일 차원으로 보았는데, 그 차이나 유사점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접근과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문화특수적 현상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질적인 접근이 우선되어 일상생활 속의 언어와 사회적 행위 양식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규범적이고 연역적인 가설검증은 일반인들의 사회적 사건에 대한 이해나 설명방식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팔자 개념화를 위해 근거 이론적인 귀납적 추론 접근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였다. 또한 양적인 접근으로 사회적 사건 스크립트를 사용해 반응을 분석하여 질적인 접근을 보완하고자 했다.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팔자 귀인의 동기나 기능에 대한 양적인 접근과 남, 여 성차에 따른 혹은 세대에 따른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더불어 문화비교적인 시각에서 유사문화권이나 서구문화권과의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범, 김지영, 최광혁, 한준오, 최상진 (2002). 통제신념과 팔자: 팔자는 통제불가능한 것인가.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98-112.
- Kim, K., Kim, J-Y., & Choi, S. C. (2002). Palzha as self-reflective mode and attributional dimension for Korean women's rugged life story.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17-29.
- 김열규 (1984).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현암사.
- 김혜숙 (1999). 사회심리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전망 및 과제. 고재홍, 구자숙, 김혜숙, 나은영, 남기덕, 박재현, 안미영, 이석재, 이진환, 최인철, 홍기원 (공저), 현대사회심리학 연구 (pp. 1-38). 서울: 시그마프레스.
- 이규태 (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상, 하). 서울: 삼중당.
- 이을환, 김수 (1998). 고사성어 속담사전. 서울: 성문사.
- 일상문화 연구회 (1996). 한국인의 일상문화.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39-350.
- 최상진 (1992). 한국인의 통제유형. 사회과학연구 제 5집,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05-120.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한국인의 신세조망양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하계학술 발표대회, 10-22.
- 최상진, 김기범, 김지영 (2001). 한국인의 신세조

- 망양식: 팔자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70-71.
- 최상진, 유승엽 (1993). 서편제 속의 '한'심리학. '93 사회과학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4-93.
- 최상진, 이요행 (1995). 한국인 화병의 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327-338.
- 최상진, 최순영 (1989). 규범적 귀인에서 상식적 귀인에 이르는 통합적 귀인 모형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4(2), 11-32.
- Anderson, C. R. (1977). Locus of control, coping behaviors, and performance in a stress sett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446-451.
- Antaki, C. (1985). Ordinary explanation in conversation: Casual structure and their def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 213-230.
- Battle, E. S., & Rotter, J. B. (1963). Children's feeling of personal control as related to social class and ethnic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82-490.
- Bjorck, J. P., Lee, Y. S., & Cohen, L. H. (1997). Control beliefs and faith as stress moderators for Korean American versus caucasian American protesta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5(1), 61-72.
- Bradbury, T. N., & Fincham, F. K. (1992). Attributions and behavior in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613-628.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R. (1999). Casu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Choi, S. C., & Kim, J-Y. (2000). Lay people's attribution style for negative and positive events in Korea: Based on fate and Palz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July 16-21, Poland.
- Choi, S. C., & Kim, U. (1993). Indigenous form of lamentation in Korea, Han: Conceptual, philosophical, and empirical analyse. *Chung A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6, 185-205.
- Christopher, J. C. (in press). Situating psychological well-being: Exploring the cultural values and assumption underlying theory and research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 Crandall, C. S., & Martinez. R. (1996). Cultural, ideology, and antifat attitud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1165-1176.
- Furnham, A. (1982a). Explanations for unemployment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335-352.
- Furnham, A. (1982b). Why are the poor always with us? Explanation for poverty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311-322.
- Furnham, A., & Hayward, R. (1997). A study and meta-analysis of lay attribution of curse for overcoming specific psychological problem.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3), 315-320.
-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 Hohn, N. (1998). Does fate make mates? *Psychology Today*, 31(4), 16.
- Kashima, Y., & Triandis, H. C. (1986). The self-serving bias in attribution as a coping strategy: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83-97.
- Kelley, H. H. (1967). Attribution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D. Levine (Ed.), *Nebraska*

-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Neb: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im, K., Choi, S. C., Choe, G-H., & Kim, J-Y. (2001). Fate and Palzha: Are they controllable?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July 10-13, Australia.*
- Larson, L. M., & Sailors, L. P. (1997). Perceived effective problem solvers' attributions concerning success and failure of a simulated real-life problem. *Behavior Modification, 21* (3), 341-354.
- Lee, E. H. M., & Herzog, T. (1996). Explaining real life events: How culture and domain shape attribu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732-741.
- Lefcourt, H. M. (1976). *Locus of control: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 Erlbaum.
- Levenson, H. (1974). Activism and powerful others: Distinctions within the concept of internal-extern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377-383.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sumoto, D. (1996). *Culture and psychology*. Alban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971.
- Pittman, N. L., & Pittman, T. S. (1979). Effects of amount of helplessness training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9-47.
- Potter, W. J., & Levine-Donnerstein, D. (1999). Rethinking validity and reliability in content analysi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7*, 258-284.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of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Whole No. 609).
- Semin, G. R., & Zwier, S. M. (1997). Social cognition. In J. W. Berry, Y. H. Poortinga, J. Pandey, P. R. Dasen, T. S. Saraswathi,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2nd Ed.)* (pp. 51-75). Boston: Allyn and Bacon.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iner, B. (1983). Some methodological pitfalls in attribution researc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548-573.
- Yang, K-S, & Lin, Y-C. (2000). An external orientation to the study of causal beliefs application to Chinese populations and comparative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 160-186.

1 차 원고 접수일 : 2005. 1. 28
최종 원고 접수일 : 2005. 2. 15

Palzba (八字) as Lay People's Mode of Self-View on Negative Life Events and History in Korean Culture

Ji-Young Kim

Chung-Ang University

Kibum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conceptualize *Palzba* and investigate *Palzba* inference as mode of self-view. In general, people would like to attribute their unhappy and unfortunate life events or histories to *Palzba* which is given by the supernatural being. According to analysis of interviews and open-ended responses concerning on *Palzba*, *Palzba* indicated 'luck', 'uncontrollable situation', or 'fate' given by the supernatural being. In study 2, we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belief and *Palzba* attribution. More having external control belief, more tending to attributing the rugged life events or histories, and unexpected fortunate events to *Palzba*. Consequently, *Palzba* as mode of self-view on everyday events or life-events indicated it is likely to be another dimension of attribution on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life events in Korean culture.

key words : Attribution, Fate, *Palzba*, Han(Lamentation), Self-View

KCS I

KCS I

KCS I

KCS I

KCS I